

박상우 장관, GTX-A 개통준비 첫 점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꼼꼼한 검증 당부”

- 5일 동탄에서 수사까지 시운전 중인 GTX-A 시운전 차량 탑승, 수서역 현장점검 -
- SRT와 선로 공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 당부 -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GTX 개통 준비상황 점검을 위해 1월 5일(금) 오후 2시 동탄역을 방문, GTX-A 차량에 직접 시승하여 수서역까지 이동하고 GTX 홍보관과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차례대로 점검하였다.
 - 특히, SRT가 운행되는 시간대에 실시하는 GTX 시운전 차량에 시승하여 고속열차와의 간섭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 박 장관은 '23년 12월 4일부터 진행 중인 종합시험운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종합시험운행*은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이므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검증할 것”을 당부하였다.
 - * 신설·개량 철도노선에서 영업 시작 전 시설물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철도 종사자의 업무숙달 여부 등을 점검하는 절차
 - 박 장관은 시운전 중인 GTX-A 차량에 탑승해, “최고시속 180km에도 진동·소음이 거의 없는 점이 인상 깊다”고 차량 성능을 평가하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SRT도 운행 중인 선로이므로 실제 운행 시 선로 공용에 따른 안전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시운전 과정에서도 SRT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차량 성능 점검을 마친 박 장관은 GTX 홍보관을 방문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GTX 사업의 추진현황, 대심도 터널의 안전성 등 다양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이어 박 장관은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GTX-A 수서역 현장에 내려가 “출퇴근 시간에 많은 승객이 몰리더라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환승·이동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안전요원 배치 등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철저히 하고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날 점검을 마치면서, “올해는 GTX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해로서,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뿐 아니라 수도권외 경제·문화·산업을 골고루 발전시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의 기틀을 다지는 원년인 만큼, 관계자 모두 자긍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 특히, “국민과 약속한 일정에 맞춰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될 수 있도록 GTX 업무관계자 모두가 마지막까지 사명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 1. 5.

국토교통부 대변인